



인천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다 - 교육과 복지 전문가 김실 위원장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실 위원장님을 만나 뵈고 왔습니다. 김실 위원장님은 전 인천시교육위원 출신으로, 교육계에 오래 몸담아 지역주민과 학부모 우리 지역의 교육을 위해 오랫동안 힘 써 오셨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결핵협회인천지부 지부장으로도 활동하시며, 추운 겨울 지역 주민들에 건강과, 결핵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위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위원 활동을 하며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지역주민과 학부모, 성장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현재는 사설위원으로서 소외된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사각지대 및 고위험군 사제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과 지역주민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관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간 한분 한분이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가슴으로 진정성 있게 대해 세상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것이 복지관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먼저 복지관에 찾아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복지관에 먼저 찾아온다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인사를 나눈다면 지역이 따뜻한 사람으로 넘쳐 소외되는 이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동북지 허브' 사업에 따라 민·관 협력 방안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지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동'입니다. 지역주민을 가장 많이



인천광역시의회-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업무협약 (좌 김실 위원장 우 노경수 전 인천시의회 의장)



김실 사설관리 위원장

알고 있고,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이 주민들과 함께 복지의 허브화가 된 복지사각지대 및 고위험군 사례 대상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연말 어떤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지요?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항공과 해상 교통요충지입니다. 이에 따라 결핵이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속적인 결핵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년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쉼 사업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통해 결핵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행복나눔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연말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거주하며 따뜻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행복한 주민들과 함께 복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부 9단'의 반찬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요 "앓아서 얘기하다 울다 웃다 온 적 많아요."



주부9단 단체사진



주부9단 체험활동



외부체험 활동

복지관 욕상에 올라가면 칸막이로 된 지붕을 삼아 주방 기구와 조리도구들이 놓여 있고, 한쪽 벽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용기들이 들쭉날쭉 줄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주부 9단' 마을공동체의 나눔 봉사 작업장이며 주부9단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2012년 복지관에 마련된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배우러 온 회원이 모여 만든 천연염색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된 것이 첫 출발이다. 그러던 중 지방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니던 중 각 잡터에서 공수해 온 각종 나물과 채소, 특산물들 이웃과 나누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벌써 몇 년째다.

첫 시작 당시 뜻은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주부들을 위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나섰다.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고, 바쁜 주부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주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고, 어떻게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지금의 주부9단의 기반을 함께 다져나갔다.

그렇게 틀을 잡게 된 주부9단은 2명에서 4명, 4명에서 7명, 7명에서 11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자랑인 주부라는 특성을 살려 반찬을 만들었고, 부족한 재료나 식기는 실시일반으로 모아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 오시는 취약 어르신 분을 중심으로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주부 9단에 속한 회원 열한 명 중 세 명의 남자회원을 빼면 모두 살림살이에 달인이신 주부들이라 집에 있는 양념과 그릇, 주방기구들을 직접 가져와서 음식을 손수 만든다. 또한 세 명의 남자 회원들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며 다른 회원 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열세 분을 선정해서 매주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있다.

주부 9단 윤미자 회장님은 "반찬 나눔의 대상자는 단순히 복지관에 오시는 취약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례대상자 발굴을 중점으로 하는 복지관 내 동아리인 두레자기의 도움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거나, 이웃에서 소외된 분들을 알음알음 추천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주부 9단이 단순히 반찬 나눔에서 끝난다면 걸치레나 하는 단체들과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배달을 하며 그분들의 잡자라도 봐드리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아픈 데는 없는지, 말벗도 되어드리지요. 앓아서 얘기하다 울다 웃다 온 적도 정말 많아요."

주부 9단의 총무 김경자 회원은 이 일을 하며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새벽 무렵 찜질방에 들렀다 나오면서 버스정류장에 입김과 함께 앉아계시는 찰싹 남은 낫은 할아버지와 마주쳤어요. 바로 우리가 나눔을 하는 대상자 어르신인데 일당이라도 벌려고 인력시장에 가신다고, 얼마 전 아픈 다리의 수술도 하셨는데... 찜질방에서 나온 반달반달한 제 얼굴이 화끈거리려 혼났어요."

2016년 6월 주부9단이 한 발 더 나아갔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행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기타 문제들을 보조하기를 자처하였고, 주부9단 역시 자신들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더욱 사회에 기여하고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공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결실로 공모에 당선되어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도움의 손길도 늘어났다. 작게는 개인 사업자의 후원, 기부 크게는 새마을 부녀회, 주민센터, 적십자회 등 여러 단체에서 후원에 동참해 주어서 올 겨울 쌀과 김장을 넉넉히 해 나눌 수 있어서 풍성한 겨울을 맞을 수 있었다.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 된장과 고추장, 간장을 담가서 판매도 하고 양념으로 쓰고 나눔도 같이 하고 있다.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종자돈의 역할을 하고 나누고도 남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주부 9단의 남자 회원 한 명이 직접 내어준 15평 남짓의 텃밭 덕분에 반찬에 쓰이는 각종 채소를 친환경으로 길러내는 넉넉함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일구어내고 복지관에서 후원하고 맡아주니 '주부 9단'이 찾아가는 곳은 포근한 집안이 된다. '열집은 있어도 이웃은 없다'는 말은 이제 우리 마을에는 들을 수 없는 말이 될 것이다.

천명옥 시민기자

주부9단 활동과 후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032-876-8181



따뜻한 나눔가게를 소개 합니다.

·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한 실천에 항상 감사합니다.
· 따뜻한 나눔을 함께 실천하실 분은 032)876-8181로 연락 바랍니다.

돌판향기



신선한 고기와 특별한 돌판을 이용하여 보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집!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돌판향기는 저렴한 가격과 감동적인 맛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의 맛을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손님이 만족하고 나가기 전까지 옆에서 보조하며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바로 두루치기! 푸짐하고 싱싱한 야채와 함께 볶아주는 두루치기는 간장게장은 명함도 못 내밀 밥도둑이라고 하니 꼭 먹어보세요!!

돌판향기의 특별한 서비스 하나!

고기를 드신 모든 손님에게 잔치국수가 제공된다는 사실!! 식사 후 입가심으로 딱!! 멋진 사장님이 맛있는 고기에 돌판의 품미까지 곁들여주는 돌판향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예약문의 032-873-8625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2(주안동)

황금오리



수고한 내 몸을 위해 건강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건강 보양 오리 음식집!

※ 2013 맛있는 집 경연대회 최우수상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황금오리는 무더운 한 여름날 우리들의 몸에 건강한 보양식이 될 맛있는 오리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오리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름 보양 음식으로는 능이버섯 오리 백숙이라고 해요. 오리백숙이라고 해서 기름이 많을 것이라 생각은 금물! 일단 드셔보시면 그 갈콤함에 한 번 더 놀랄 겁니다! 또한 능이버섯은 기관지·천식·감기·상해·콜레스테롤·산화·암 등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암에 강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입니다. 백숙을 다 드시면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는 맛있는 백숙 한 그릇의 여유까지 즐기고 오시면 됩니다.

☎ 예약문의 032-861-2010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8(주안동)

정자갈비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양념돼지 갈비 요리집!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정자갈비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주말 외식을 즐기실 수 있는 식당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식사하러 아이들 챙기느라 많이 힘드셨죠? 정자갈비에서의 식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준비되어진 안전한 놀이방과 함께라면 말이죠.

양념갈비는 밑반찬으로 나오는 명이나물과 함께 먹어보시면 달달하면서 느끼하지 않는 맛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주말, 타기 쉬운 양념갈비를 알아서 잘라주시는 친절하신 직원 분들의 서비스와 함께, 가족들과 잊지 못할 외식을 즐겨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 예약문의 032-874-9588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12(주안동)



복지관 소식



2016년 교육문화프로그램 종강식 및 발표회 / 성인문해지원사업수료식

- ▶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회의실
- ▶ 내용 : 교육문화프로그램 발표회 진행 및 공로상 수여



2016년 어르신 송년잔치

- ▶ 일시 : 2016년 12월 15일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강당
- ▶ 내용 : 연말과 동지를 맞이하여 제가센터 어르신들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고, 공연 관람



2016 연전골 송년의 밤

- ▶ 일시 : 2016년 12월 8일(목)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회의실
- ▶ 내용 :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장 시상식, 2016년 후원, 자원봉사 현황보고, 축하공연, 참 좋은 인연(홀몸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활동)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도예교실'

- ▶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 2016년 12월 14일(수) (사업종료안내)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3층 도예실
- ▶ 내용 : 도예생산기술 습득 및 자립적 경제활동의 기틀 마련



미추홀 천사들과 함께하는 'Merry Michumas!' 가족잔치

- ▶ 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회의실
- ▶ 내용 : 방과후교실, 장애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지원 성인장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은 초청하여 활동사진·영상 시청, 아동 공연(발표회), 산타잔치, 저녁식사



사단법인 미추홀공덕회 소식

미추홀공덕회 후원자님의 공덕에 감사합니다.
새해 후원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미추홀공덕회는 지난 2015년 4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200 여명의 분들이 후원자 등록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수미정사 신도님과 후원자님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해민스님 인천시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 등 복지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인천최초 불교복지법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려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미추홀공덕회는 '불교 복지 실현'이라는 큰 꿈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신도님과 후원자님의 애정 어린 지속적인 관심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발전으로 보답하는 미추홀 공덕회가 되겠습니다.
신도님과 후원자님의 넘치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사찰 수미정사 소식

해양경찰 경승실 이운법회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해양경비 안전서 해양경찰 경승실(3층)에서 지난 12월 15일 오전 11시 해양경찰 및 의경 불자회 법당 확장으로 부처님 이운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수미정사 회주 종연스님은 2004년부터 해양경찰 불자들의 행동을 돕고자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경승위원장,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권위원으로 활동 하셨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봉축 대법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종연(회주)스님과 수미정사 포교사단은 해양경찰 불자회를 끊임없이 지원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축하 법회에 용주사 법호스님이 내빈으로 자리하였고, 수미정사 신도회와 경인불교대학, 밝은소리합창단, 사부대중 30여명, 해양경찰불자회 10여명이 함께 동참하여 축하하였습니다. 수미정사 부주지 일원스님의 명종, 헌화 신도회장, 헌향 해경불자회원, 회주 종연스님의 법문, 발원문, 축가로 여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미정사 종연(회주)스님은 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영가들을 위로하였고 특히 해경으로 근무도중 순직하신 분들의 영가들을 위로하고 축원하였습니다. 해경불자회원(경사)의 발원문은 "명석한 판단과 세밀한 통찰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건 사고 없는 예방치안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가호하시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능력대로 친절히 봉사하고 기쁨과 긍지로써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낭독하였습니다.

인천해경안전서의 해경들은 인천 시민의 안녕을 먼저 염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여법한 해경불자회 해인법당이 5평 남짓 규모에서 20여 평의 공간으로 확보되어 신행생활이 편리하고 여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봉축합니다. 매월 2, 4주에 진행되는 '해경불자회법회'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시민기자단 모집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본 복지관에서 매 달 발행하는 미추홀n 제작에 함께 참여할 시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인천 남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분, 신문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 모집대상 : 지역주민
(신문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소통하기 좋아하는 분)
- ▶ 활동내용
인터뷰와 기사작성을 통한 매 달 미추홀n 제작, 전문 기자 초빙 교육 진행
- ▶ 문 의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032-876-8181

알자배기 소식통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 방지에 함께해주세요

현재까지(11.30기준)

6개 시도·13개 시·군·구 5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H5N6형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다른 시에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인체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존에 써왔던 AI 예방·치료제의 경우
그대로 사용해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니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AI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AI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세요.**

1.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부득이 가야한다면,
① 조류 사체나 배설물은 피하고
② 차량 소독시설이나 발판소독조로 꼭 소독해주세요.
2. 야생조류 사체를 절대 밟거나 만지지 마세요.
3.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 등 얼굴을 만지지마세요.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가축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면
**1588-9060, 1588-4060 으로
신고하세요.**

닭·오리와 접촉하고 난 뒤
발열과 근육통,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주세요.

보리수 도예 공방을 소개 합니다.

- ▶ 보리수 도예공방
-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인원	대상	교육비	일시
어린이 도예교실	최대 20명	6세 ~ 13세	40,000원	월요일 16시
성인 A 도예교실	최대 20명	20세 이상	40,000원	수요일 14시
어르신 도예교실	최대 20명	60세 이상	무료	수요일 16시

- ▶ 장 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수강료 및 이용문의 : ☎032/876-8181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대신! 성실한 수업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내부회의를 통해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관련서류지참)

우리 동네 탐방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에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 한다 '함께 걷는 길벗회'



인천대공원에서 진행된 '함께 걷는 길벗회' 행사

이번 달에는 인천 남구를 중심으로 장애인 재활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함께 걷는 길벗회'를 방문하여 한용길 이사장님과 함께 만나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Q. '함께 걷는 길벗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단법인 '함께 걷는 길벗회'는 1993년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동구 송현동 수도국산 아래서 제가 자원봉사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난한 사동네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급식과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도화동, 주안동에 있는 장애인 및 청소년, 성인 장애인의 재활 교육 기관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간 보호 센터, 단기보호 센터, 보호 작업 시설, 공동생활 가정(청인정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Q. 장애인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함께 걷는 길벗회'의 슬로건이 '자립과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단순지원이 아닌 그들 스스로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에 슬로건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아를 둔 가정의 부

모 역시 장애 자녀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감, 시간적인 압박, 경제적 열악성, 사회적 대인 관계의 열악성 등, 제 2의 장애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시적 도움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호 작업 시설과 '청인정방'이라는 공동생활 가정을 갖추어 장애인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인정방'에서는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된장, 간장, 매실을 상품화 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레정신을 바탕으로 남구 제물포에서 '히트 앤드 런'이라는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히트 앤드 런'은 제물포 주변 상권의 침체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축을 문화, 예술 사업 중심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없어졌던 제물포 상인회도 다시 만들어 질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Q. 장애인 재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다면?

장애인 재활은 가장 먼저 사회, 경제적인 밑바탕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인정방, 보호시설 등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실적이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서 먼저 매입하는 공공의 조달제도, 우선구매 강화 등 국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의동에 위치한 '함께 걷는 길벗회' 재활시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홍보와 마케팅에 취약점을 보이며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째로 언론과 협조해서 홍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생산의 신뢰성과 인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자립과 사회통합의 모델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송의동에 위치한 '함께 걷는 길벗회' 재활시설

Q. 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저희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 고민을 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장애아 부모 상담소'의 역할을 할 것이기에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저희 '함께 걷는 길벗회'는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자립하여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쓸 것입니다.

위치: 인천 남구 한나루로 516번길 96-8 ☎ 032)867-8088

아이의 꿈을 키워요

I can do it .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 - 경찰

이번 달에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경찰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인천남부경찰서 이강현 정보관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주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의 여러 보이지 않는 노력들에 관해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인천남부경찰서 캠페인 행사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찰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정보관을 하고 있는 이강현입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 나라의 치안유지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심은 곧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경찰이라는 꿈을 가진 어린 친구들이 경찰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경찰이 되려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등학생 시절 열심히 공부하여 경찰대학교로 들어가면 됩니다. 경찰대학교는 연간 약 120명 가량의 경찰을 배출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부 후보생 시험을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간부로 근무하게 될 사람을 뽑는 건데요. 연 간 60명 가량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경찰채용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선택한 방법으로서 필기, 체력, 적성, 면접 검사의 과정을 통해 채용되어집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비롯한 시험 응시 과목에 관련한

꾸준한 공부와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Q. 경찰로서 일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지구대에서 근무하였을 적에 주취자들과 많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추운겨울 날 밖에서 술에 취해 잠들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하기에 파출소에 모셔 오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과도하게 법 집행을 하지 못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경찰은, 치안유지와 범인 검거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경찰들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가 맡은 주요업무는 집회 시위 관리입니다.

집회가 열리기 전에는 집회에 관련된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안전한 집회

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집회 중에는 안전한 평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시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하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찰이라는 직업은 밖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이에 따라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관의 확립과 정의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약자의 편에서 서서 약자를 대변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을 꿈꾸는 아동들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멋진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탐방

춤추는 모습이 아름다운 학생들

학익여고 댄스동아리 - 트리플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학익여자고등학교 댄스동아리 '트리플'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동아리 담당선생님과, 단장 김보미(18), 부단장 차승희(18) 친구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길지 않은 인터뷰 시간에도 불구하고 댄스에 대한 열정과, 동아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연습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남구비주열담당 동아리 '트리플'에 대해 알아보시죠?

Q. 학익여고 댄스동아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트리플'입니다. 세 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2학년만 활동하며 3학년은 학업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합니다. 현재 동아리는 4기이며 오롯이 춤에 대한 열정으로 통헌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잡혀 연습 할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연습 장소는 시청이나,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등 거울이 있는 넓은 장소에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선후배간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자 좋아하는 댄스로 뭉쳤기 때문이지요. 틀 날 때마다 연습



학익여고 댄스동아리 '트리플' 공연 모습

을 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지난 7월 월미도에서 열린 불꽃축제에서 한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공연 중에 가장 사랑도 많았고 환호도 많았답니다. 또한 저희학교에서 열리는 축제 같은 경우 외부사람들이 볼 수 없는 데 이번 불꽃축제 같은 경우 외부사람들도 볼 수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함께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칭찬도 받아 뿌듯한 기분으로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트리플'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 전전하며 예의바릅니다. 동아리 특성상 선후배

간의 권위적인 문화에 대해 걱정하였는데 그런 분위기 하나 없이 서로 어울리며 밝은 분위기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동아리의 지속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희는 학교 체육대회, 외부 공연 등 연간 5~6번의 공연을 합니다. 한 공연에는 5곡 정도를 편집해 공연하며 학업에 최대한 지장 없이 2주 정도의 연습시간을 갖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고3이 되어 후배들이 동아리를 이끌어 나갈 텐데 지금까지처럼 꼭 동아리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아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동아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학익여고 댄스동아리 트리플'을 검색해 방문해주셔서 더욱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을 찾아서



선조들의 '희노애락' 전통을 이어간다 서도소리 - 정은희 선생님



정은희 서도소리 보존회 인천지회장의 공연 모습

'서도소리'를 아십니까? 서구에 서도소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서도소리보존회 인천지회장을 정은희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Q. 선생님 소개와 함께 서도소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도소리 인천지회 부회장 정은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요를 좋아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고 현재까지 약 30년간 서도소리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도소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로서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주로 불린 노래입니다.

대표곡으로는 <수심가>, <배뱅이> 등이 있습니다.

Q. 현재 젊은 세대에게는 서도소리가 생소한데 널리 알리고 전승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2007년부터 서도소리보존회를 창립

해 현재 인천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까지 초등학교생들에게 무료로 서도소리를 가르쳐 함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초등학교 졸업 이후 발길이 줄어들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서도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다가 전통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변화를 주기로 생각하였습니다. 전통과 현대와의 퓨전형식으로 대중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기로



'인천아리랑' 공연 모습

한 것입니다. 의상부터 시작하여 음악 또한 밴드와 함께 공연을 진행해,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중들이 조금 더 반가워하며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서도소리에 관해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수심가>, <배뱅이> 등 대표곡을 들어보시고 '서도소리'가 마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서도소리'를 전문적으로 배우면 힘지는 않지만 취미로 배우실 정도의 '서도민요'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연평난봉가> 등의 민요는 경쾌하고 발랄해 처음 하는 분들은 함께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인천 대표곡 '인천아리랑'을 변함없이 사랑해주셔서 인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심곡로 15 정은희 국악원 ☎ 032) 567-2525



서도소리 발표회를 준비 중인 모습



공연 연습중인 '트리플'



화려한 분위기의 단체사진

